

통일의 찬연한 빛발을 받아안았습니다

뜻깊은 새해 2014년의 첫 아침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내외의 커다란 관심속에 역사적인 신년사를 하셨습니다.

지난해 정초 머나먼 이역땅에서 TV를 통하여 첫 신년사를 하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존안과 우렁우렁하신 음성을 들으면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신년사를 하시던 때가 다시금 떠올라 격정을 금할수 없었던 우리 재중동포들이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해외동포들이 조국의 통성변명을 위해 헌신하고있는데 대해 해아려주시며 따뜻한 새해인사를 보내 주실 때에는 한없는 감사와 행복감에 온몸이 달아올랐다. 지난해 12월 조국을 방문하여 원수님을 뵈은 때로부터 불과 10여일밖에 안되었지만 가슴 가득 차오르는 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을 억제할수가 없었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는 강성국가건설의 청사진과 함께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데 대한 응지가 담겨져있다.

새해의 첫 언덕에서 휘황찬란한 신년대강을 받아안은 감격을 안고 올해 조국의 부강번영과 조국통일의 새 전기를 열기 위한 사업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갈 우리 해외동포들의 결심을 글에 옮겨본다.

1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는 새길수록 온 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신심을 북돋아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의 한평생의 념원을 반드시 풀어드리시려는 확고한 결심과 통일애국의 응지와 신념이 드높이 맥박치고있어 심장을 뚫게 한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위대한 주석님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역사적인 문건에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20돛이 되는 올해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오기 위한 대강이다.

신년사에는 올해 조국통일운동의 힘찬 전진을 위한 방략과 방도들이 명쾌하게 밝혀져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결해나가기 위한 원칙적문제로부터 민족의 안전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문제,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을 위

한 분위기를 마련하는데서 나서는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천명되어있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는 자자구구 자주의 기상이 넘친다.

자주는 민족의 생명이고 통일운동의 근본초석이다. 자주를 떠나 민족문제, 통일에 대해 말할수 없다.

자주를 조국통일운동의 기동으로 튼튼히 세워주신분은 위대한 주석님과 장군님이였다. 민족분열의 첫시기부터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시기 위해 온갖 실험과 로고를 기울여 오신 위대한 주석님과 장군님이시다. 그분들께서 내놓으신 모든 조국통일로선과 정책들은 하나같이 자주를 출발점으로 하고있다. 우리 해외동포들을 만나주실 때에도 언제나 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데 대해 강조하시였다. 조국통일3대원칙을 천명한 7.4북남공동성명도 자주의 결실이였고 우리 민족끼리를 핵으로 하는 역사적인 6.15, 10.4선언도 자주의 산물이였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는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초지일관 견지하고 구현해오신 숭고한 자주사상이 맥맥히 흐르고있다.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림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는 말씀에도 자주리념이 굽이치고 조국통일의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며 조국통일운동의 주인도 우리들자신이라는 말씀에도 자주의 활력이 넘친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조국통일은 오직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에서 천명된 자주의 원칙, 우리 민족끼리의 림장을 확고히 견지할 때 실현가능한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그래서 해내외동포들은 원수님의 신년사는 통일실현, 북남관계개선의 유일한 해법을 천명한 또 하나의 자주선언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있는것이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민족의 안전과 평화수호의 기개로 빛발친다.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온 겨레의 소망이며 시대의 지향이다. 민족의 안전과 평화에 통일도 있고 번영도 있다.

신년사에는 이 땅에 참혹한 재난을 가져오게 될 내외호전세력들의 대결과 전쟁행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할것이라는데 대해 강조되어있다.

신년사에는 이 땅에 참혹한 재난을 가져오게 될 내외호전세력들의 대결과 전쟁행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할것이라는데 대해 강조되어있다.

신년사에는 이 땅에 참혹한 재난을 가져오게 될 내외호전세력들의 대결과 전쟁행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할것이라는데 대해 강조되어있다.

신년사에는 이 땅에 참혹한 재난을 가져오게 될 내외호전세력들의 대결과 전쟁행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할것이라는데 대해 강조되어있다.

현 정세와 민심의 요구를 반영한 지극히 정당한 주장이다.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전례없이 첨예하고 긴장하다. 내외호전세력들은 방대한 핵전쟁장비들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집중시켜놓고 북침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다. 이로 하여 사소한 우발적인 군사적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질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하지만 이 땅에는 평화가 유지되고 민족의 안전이 보장되고있다. 공화국이 선군의 기치높이 막강한 자위적전쟁억제력을 마련해놓았기때문이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한해 쉽없는 선군장정으로 공화국의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여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굳건히 지켜주시였다. 천만리로 이어진 원수님의 선군길이 있었기에 외세가 몰아오는 전쟁의 불구름은 가셔졌고 민족이 당할 재난은 방지되었다.

남조선동포들이 《우리 민족의 목숨을 살려주시고 민생을 구원해줄분도 오직 김정은원수님뿐입니다.》라고 하면서 경에하는 원수님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올리려는것은 너무도 웅당하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는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가 물결친다.

북남관계개선은 조국통일을 위한 전제이다. 북남관계개선이 없이는 통일문제, 민족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없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겨레가 외세에 의해 갈라져 근 70년동안이나 온갖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는것도 모자라 동족끼리 비방하고 반목질시하는 가슴아픈 사태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으시려는 의지가 어려있다. 조선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에게 어부지리만을 주는 백해무익한 비방증상을 무조건 끝내려는 부동의 결심이 뉘뚝고있다.

그래서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아갈것이라고 하신 말씀도 해내외동포들모두의 심금을 울리고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것이라는 말씀도 온 겨레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준다.

실로 대범한 용단과 통 큰 아량이 담겨진 신년사이다.

지금 경에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내

최은복

외를 크게 격동시키고있다. 우리 해외동포들을 비롯한 온 겨레가 신년사를 적극 환영하고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담긴 숭고한 뜻을 깊이 새겨안고있으며 신년사를 철저히 관찰하기 위한 결의모임들을 진행하고있다. 재미, 재로, 재유럽동포들속에서도 신년사를 지지찬동하는 글들이 련속 발표되고있다.

남조선의 출판물들은 신년사를 하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영상사진을 모시고 신년사 전문을 소개하고있으며 《김정은제1비서의 육성신년사 김일성주석의 마지막통일친필 20돛을 강조, 선대의 념원과 유훈 실현의 의미》, 《통일위업수행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려는 겨레의 지향과 의지, 조성된 정세의 요구가 가장 정확히 투영된 년두교서》 등으로 분석하고있다.

그렇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야말로 조국통일3대원칙과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에 천명된 자주의 원칙과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올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확신성있게 열수 있는 길을 밝혀준 휘황한 대강이다.

2

조국통일은 애국애족의 거룩한 경률과 결출한 령도력과 함께 온 민족을 아우르는 광폭의 도량을 지닌 위인의 향도아래서만 이루어질수 있다.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뜻대로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실것을 자신의 숭고한 사명으로 간주하시는 절세의 애국자이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외세에 의하여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을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셨다. 21세기에 들어서서라도 이루지 못한 통일을 두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신 장군님의 심려를 그대로 안고계시는 원수님이시기에 통일에 대한 결심도 구상도 의지도 장군님처럼 굳건하고 원대하며 철석같으시다.

그 결심과 의지는 위대한 주석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데 대한 말씀에도 어려있고 참다운 애국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굳게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

을 해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역사적 문건을 위대한 생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20돛이 되는 해이다.

돌이켜보면 조국통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간절한 념원이였고 애국위업이었다.

외세에 의해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근 50생상은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실험을 다 바치신 수령님이시였다.

이것이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나의 일생을 판통하고있는 변함없는 의지이고 신념이라고,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위력한 무기는 민족대단결이라고 하시였다.

일찍이 김일성주석께서는 남조선에서 외세와 야합한 매국배족세력의 《단선단정》 조작책동으로 민족분열

이 고착화될 위험이 조성되었을 때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의 련석회의를 소집하시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정론을 펼치시였고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의 《두개조선》 조작책동으로 영구분열의 위험이 질어가던 1970년대초에도 조국통일을

에 힘차게 펼쳐나섬으로써 올해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데 대한 호소에도 빛발치고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미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돛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과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를 실현해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통하여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대로 조국통일을 이룩할데 대해 천명하시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조국통일은 곧 애국이고 조국분열은 곧 매국이라고 하시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평생의 념원을 실현할 의지를 겨레의 심장속에 심어 주신분도 원수님이다.

신년사에 접한 한 남조선동포가 이런 말을 하였다.

남북간 통일은 쉽게 풀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안팎으로 장애물 또한 적지 않다. 하지만 결코 이루지 못할 위업이 아니다. 태양이 비치면 밝음이 오기마련이다. 고결한 정성과 함께 명철한 사상과 리론으로 조국통일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김정은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님께서 계시니 통일의 날은 결코 멀지 않다. ...

어제 그만의 심경이라 하겠는가.

위대한 주석님과 장군님의 념원을 받들어 조국통일을 이루실분은 오직 경에하는 원수님뿐이시라는것은 온 겨레의 확고한 신념으로 되고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의 숭고한 덕망으로 온 겨레를 한품에 안아주시는 민족대단결의 구성자이다.

사상과 리념이 다르고 정견과 신앙이 각이한 해내외동포들을 하나로 단합시키는 과정이 곧 통일이며 그것은 온 겨레를 안아주는 넓고 따스한 품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우리 겨레는 지난 한해 경에하는 원수님의 겨레사랑, 민족사랑을 접하면서 그것을 다시한번 생동하게 체험하고 가장 고귀한 진리로 세웠다.

위대한 장군님처럼 민족을 우선시하고 중시하시며 민족을 위하시는 마음이 하늘같이 높고 바다같이 넓으신 원수님께서는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려는 사람들은 누구나 민족단합의 한품에 안아주고계신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세

보》로 대서특필하였다.

사상과 리념에 앞서 민족을 더 중시하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도록 해야 한다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통일애국의 뜻과 의지속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이 개척되었던것이다.

그이께서는 80평생 겨레

에게 통일된 삼천리강토를 안겨주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시였으며 생애의 마지막시각에도 조국통일과 관련한 역사적인 문건을 보여주시고 친필을 남기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민족단합의 력사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6.15시대,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시대로 이어지게 되었

게평화련합 총재 문선명선생의 서거1년에 즈음하여 은정어린 추모의 말씀을 보내주시였다. 정몽헌선생의 서거10년에 즈음하여서는 구두천서를 보내주시였다.

이 감동의 화폭앞에서 남조선의 종교인들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은 《문선명총재는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위원장님을 하늘같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고계시는분이시라고 했다. 사망한 문선명총재를 내세워주시는 김정은원수님은 주석님과 위원장님의 도량과 포용력을 그대로 이어받으신분이시다.》라고 청송해마지않았다.

지난해 나와 우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 그리고 모든 해외동포들도 경에하는 원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안았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승 60돛경축행사에 우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대표단과 재중로병대표단이 참가하도록 크나큰 민음을 베풀어주시고 행사전기간 각별한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7월 30일에는 행사에 참가한 우리 해외동포들모두를 불러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다. 지금도 나는 해외동포들이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조국인민들의 전진에 발걸음을 맞추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앞당기는데 특색있게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던 경에하는 원수님의 자애님친영상을 잊을수가 없다.

정녕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어버이장군님 그대로의 위대한 자주통일사상과 탁월한 령도력, 뜨거운 민족애로 온 겨레를 하나로 묶어세워 조국통일위업실현으로 불러일으켜주시는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필연적이다.

나는 온 겨레가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신 한없는 영광과 긍지를 안고 신년사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다면 올해 조국통일을 동에서의 새로운 전기는 반드시 열려지게 필것임을 확신하면서 그 실현에 우리 재중동포들모두가 적극 펼쳐나서도록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결심을 다시금 다져본다.

(필자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임)



열렬한 민족애, 확고한 통일의지

민족분열의 년륜을 또 한 돌기 새기며 2014년이 밝아왔다.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해를 맞으며 하신 신년사에서는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굳게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힘차게 펼쳐나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 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조국통일의 앞길에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인다 하여도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삼천리강토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우시려는 것은 경에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그이께서는 두해 전 김일성주석 탄생 100돛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오랜 세월 한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겨레가 근 70년동안 분열의 고통을 겪고있는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라고,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서 누구든지 손잡고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을이고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천명하시였다.

북남쌍방이 총부리를 마주하고있는 최대열점지역인 판문점을 시찰할때에는 김일성주석의 친필비앞에서 위대한 수령님들 어버이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을 기어이 실현하여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줄 철석의 의지를 피력하신 경에하는 원수님이시다.

숭고한 민족애와 통일의지를 지니신 그이께서는 세계평화련합총재 문선명선생이 운명하였을 때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기울인 그의 노력을 해아리시고 유가족들에게 조전을 보내주시고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주시였으며 평양에서 그를

추모하는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여주시였다. 그리고 그가 사망한지 1년이 되었을 때에는 추모의 말씀을 보내시 보내주시였다. 민족단합과 통일을 위해 기울이는 그의 열렬한 민족애와 두터운 신의, 고결한 의리에 의해 지난해 남조선의 전 현대그를 회장 정몽헌선생 사망 10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금강산에서 추모식이 거행되었고 그이께서 보내신 구두천서도 전달되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해 공헌한 민족성원들을 잊지 않고있고 믿음과 은혜를 베푸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동포애는 겨레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고있다.

온 겨레가 민족분열이라는 비극과 통일이라는 중대사를 안고있는 오늘 민족우애에 어떤 계급이나 당파적리익이 있을수 없으며 민족을 위해 서라면 그 어떤 선언도 장벽도 뛰어넘지 못할것이 없다

김연희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길에서

애국은 무엇으로부터 ...

지난해 7월 어느 날 이었다. 그날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고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문제를 가지고 담화를 나누시면서 애국에 대해 진지하게 말씀하셨다.

애국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이고 투신이고 애국을 하려면 참된 애국의 마음을 가지고 애국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고 하신 그이께서는 애국주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하시

지방산업발전의 지름길

지난해 6월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안북도 창성의 여러 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창성식료공장, 창성국수집, 읍소재지를 비롯하여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산간지대의 지리적조건과 환경에 맞게 식료공

해 이리신 그이께서는 지방산업을 비롯하여 군을 확충시키기 위한 가장 정예하고 빠른 길을 밝혀주시였다.

우리의 힘과 기술을 최대한 발동하여 지방산업공장을 현대화하야 산을 깬

인민군대가 창조와 건설도

지난해 여름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은하과학자거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셨을 때였다. 건설현장을 찾으시어 준비하게 일어난 살림집들을 보신 그이께서는 살림집들이 멋있다고, 걸 보기가 속보라고 외부만 보아도 들어가고싶은 마음이 저절로 든다고 하시면서 건설자들이 설계대로 시공을 잘한데 대해 평가하셨다. 이어 한층에 두세대로 된 살림집들을 돌아보시면 서 그이께서는 짧은 기간에 이처럼 훌륭한 살림집들을 일떠세운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거듭 치하하셨다.

곳에서는 산을, 바다를 깬 곳에서는 바다를 리용하는 것과 같이 자기 군의 특성에 맞게 경제를 발전시키고 자기 지방의 얼굴이 있고 세계와 경쟁할수 있는 제품들을 생산해야 한다는것이였다.

또한 공사장에서 제일 힘든 대상을 군인들이 담당하고 있는것을 아신 그이께서는 인민군대에 일감을 줄 재미가 있다고, 어려울 때마다 인민군대를 찾게 되고 군대에 임무를 주게 된다고 하시였다.

돌적 앞으로의 기철과 단숨에의 공격정신을 가진 인민군대를 사회주의건설의 중요구마대에 주력군으로 내세우시는 그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인민군장병들은 부강조국건설에서 군인건설자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